

## 지난 10년 새, 황혼이혼 무려 50% 증가!

최근 통계(국가데이터처, 2025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혼인 건수는 2022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25년 24만 건에 이르렀고, 이혼은 같은 기간 감소 흐름을 보이며 8만 건대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이면에는 결혼/이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대의 절반 이상(57%)이 '자녀 없는 결혼'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30년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은 무려 50% 증가했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넘버즈 332호>에서는 혼인과 이혼의 변화 양상,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과 비혼 이유, 그리고 실제 부부들의 관계 만족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세대별로 달라지는 결혼관과 관계 만족도 속에 드러나는 부부 관계의 현실을 데이터 기반으로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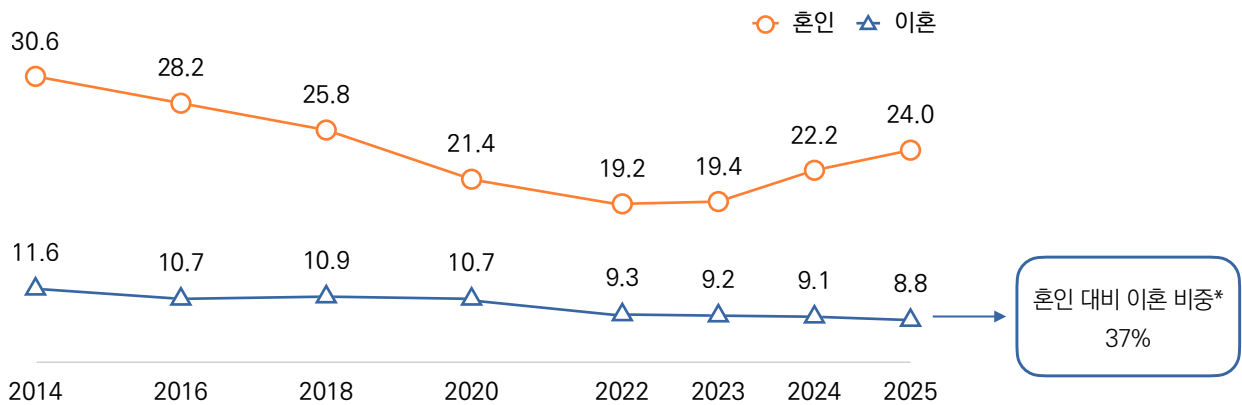
이번 호가 오늘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부부들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들의 삶에 어떻게 실질적인 위로와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3년 새, 결혼은 늘고 이혼은 줄었다!

- 최근 10년간 혼인·이혼 추이를 보면 2014년부터 지속적 하락세를 보이던 혼인 건수가 2023년부터 상승세로 전환, 2025년에는 24만 건을 기록했다.
- 이혼 건수는 2014년 11.6만 건에서 2022년 9.3만 건으로 완만한 하향세를 이어가다, 2025년(8.8만 건)에는 8만 건대까지 떨어졌다.
- 2022년 이래로 결혼은 늘고, 이혼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혼인·이혼 건수 추이 (일반국민, 만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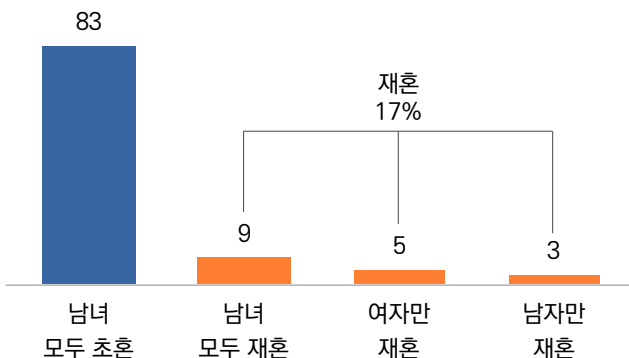
※출처 :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5 혼인·이혼 통계, 2026.03.19.

\*이혼 건수/혼인 건수×100

## 전체 혼인 중 재혼 비중, 6명 중 1명꼴(17%)!

- 혼인 종류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초혼'이 83%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고, '남녀 모두 재혼' 9%, '여자만 재혼' 5%, '남자만 재혼' 3%로 전체 혼인 중 재혼은 6명 중 1명꼴(17%)이었다.

[그림] 혼인 종류별 구성 (2025, 종류별, 일반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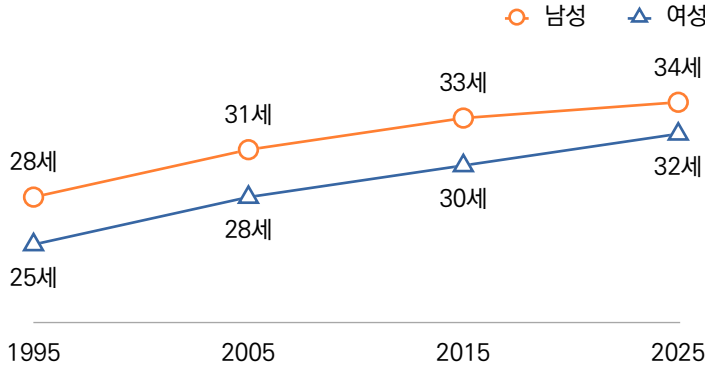


※출처 :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5 혼인·이혼 통계, 2026.03.19.

## 평균 초혼 연령, 한 세대(30년) 사이 6~7세 높아져!

- 한국인의 평균 혼인 연령은 2025년 초혼 기준 남성 34세, 여성 32세로, 한 세대(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남성(28세), 여성 (25세)이 각각 6,7세 높아졌다.

[그림] 평균 초혼 연령 추이 (일반국민)



※출처 :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5 혼인·이혼 통계, 2026.0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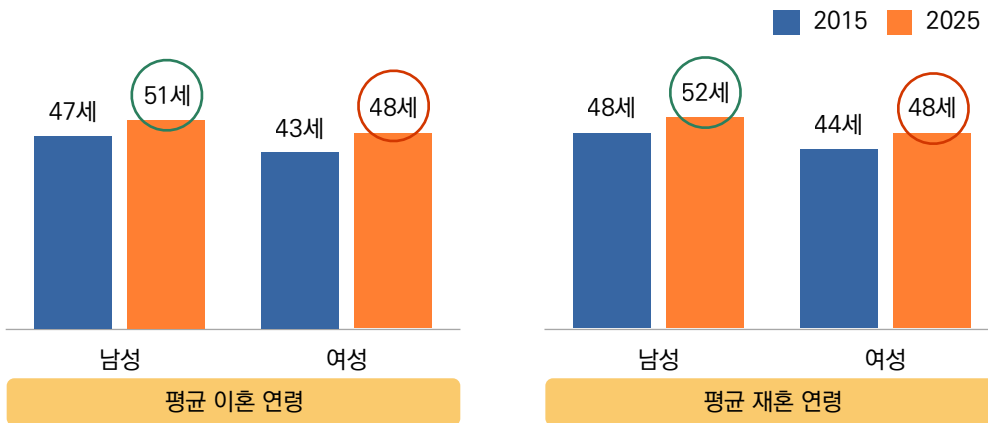
## 02

### [이혼 현황]

## 평균 이혼 연령, 재혼 연령대와 비슷해!

-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51세, 여성 48세로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이혼을 결심하는 연령대와 새로운(재혼) 배우자를 만나는 연령대가 거의 겹치는 점이 흥미롭다.

[그림] 평균 이혼·재혼 연령 (일반국민)



※출처 :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5 혼인·이혼 통계, 2026.03.19.

## 지난 10년 새, 결혼 30년 이상 부부 중 황혼이혼 무려 50% 증가!

-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이혼은 10년 새 19% 감소했으나, 30년 이상 이혼만 유일하게 무려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이혼 건수 중 30년 이상 이혼 건수 비율을 보면, 2015년 10%에서 2025년 18%로 황혼이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건수 (천 건)

	2015	2025	증감률
계	109.2	88.1	-19%
4년 이하	24.7	14.4	-42%
5~9년	20.8	15.2	-27%
10~14년	14.9	14.0	-6%
15~19년	16.2	12.2	-25%
20~24년	13.4	9.0	-33%
25~29년	8.8	7.7	-13%
<b>30년 이상</b>	<b>10.4</b> <b>(10%)*</b>	<b>15.6</b> <b>(18%)*</b>	<b>50%</b>

※출처 :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5 혼인·이혼 통계, 2026.03.19.

\* ( )안은 전체 이혼 건수 중 30년 이상 이혼 건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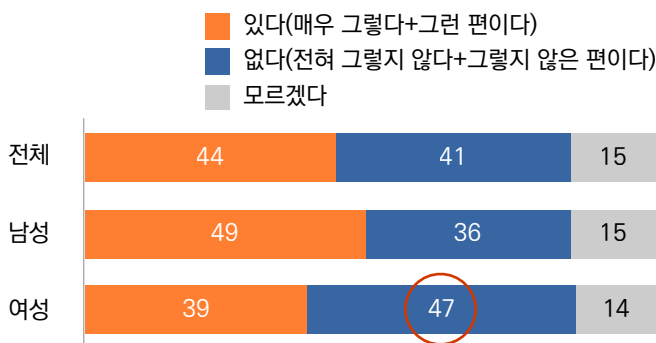
## 03

### [결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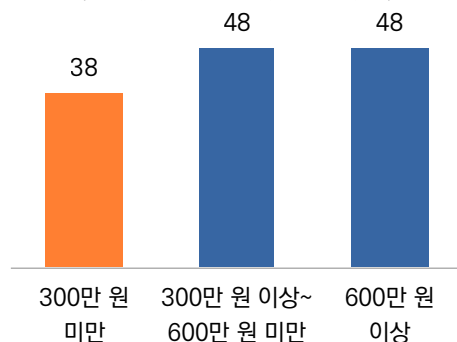
## 미혼 여성, 절반 가까이 '결혼 안하겠다'!

-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을 살펴본 결과, 미혼 응답자 중 '결혼 의향이 있는' 사람은 44%로 절반에 못 미쳤다.
- 성별 결혼 의향에는 뚜렷한 격차를 보였는데, 남성의 '결혼 의향 있음' 비율은 49%로 '의향 없음'(36%)보다 높았으나, 여성은 '결혼 의향 없음' 비율(47%)이 절반 가까이로 '의향 있음'(39%)을 앞질렀다.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보면 '300만 원 미만'(38%)과 '300만 원 이상'(48%) 간 '결혼 의향 있음' 비율이 10%p가량 차이를 보였다.

[그림]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 (2025, N=308, %)



[그림] 월평균 가구소득별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 (2025, '있다' 비율\*, N=3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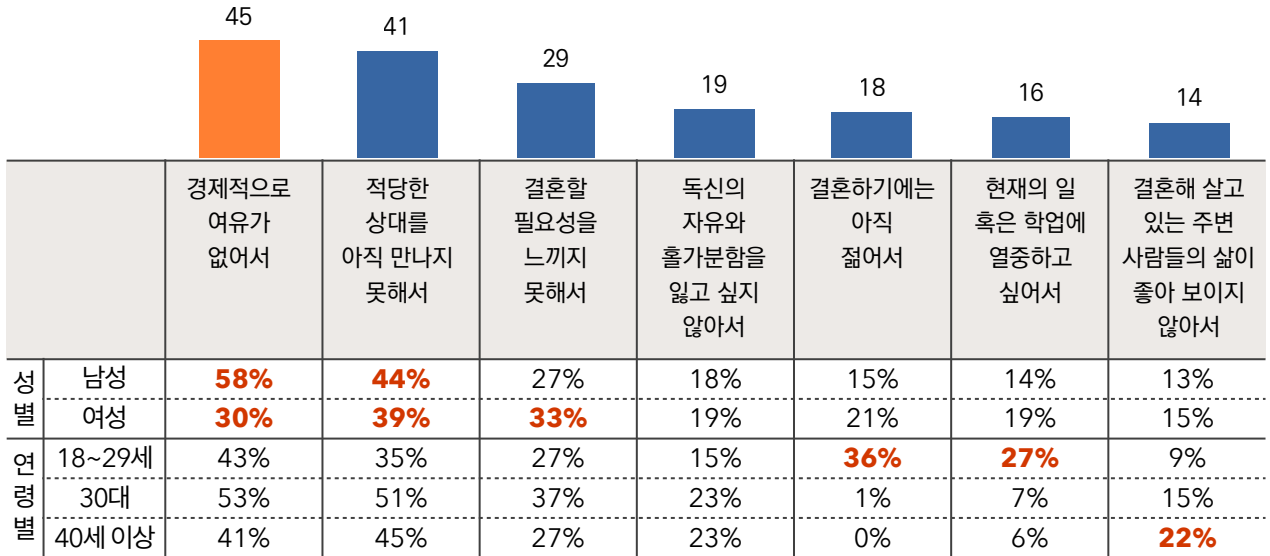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5 결혼인식조사] 미혼자의 결혼 의향, 2025.06.23.(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조사, 2025.03.21.~03.24.)

\*4점 척도

## 현재 결혼하지 않은 이유, '경제적 여유도, 적당한 상대도 없어서!'

- 현재 미혼자 대상으로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묻은 결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45%)와 '적당한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해서'(4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20대에서 '결혼하기에는 아직 젊어서'(36%)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40세 이상에서는 '결혼해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삶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22%)가 다른 연령대 대비 많이 언급됐다.

[그림] 결혼하지 않은 이유 (미혼, 2025, 상위 7개, 복수응답, N=3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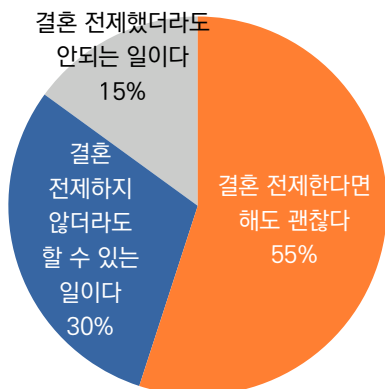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5 결혼인식조사] 미혼자의 결혼 의향, 2025.06.23.(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조사, 2025.03.21.~0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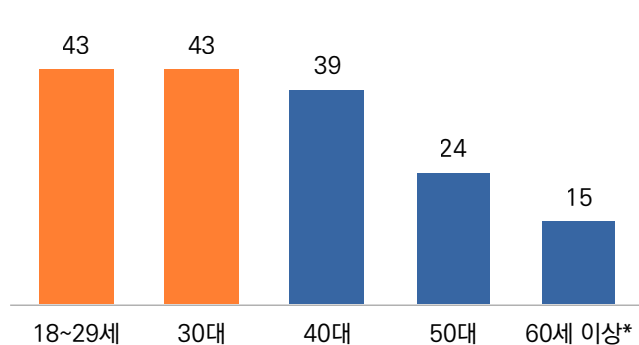
## 국민의 85%, 결혼 전 동거할 수 있다!

- 결혼 전 동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결혼을 전제한다면 해도 괜찮다'는 응답은 55%, '결혼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30%로, 국민의 85%가 결혼 전 동거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결혼을 전제했더라도 동거는 안 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 한편 '결혼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동거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30대는 각각 43%에 달했으나, 60세 이상에서는 15%로 나타나 세대 간 뚜렷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그림] 결혼 전 동거에 대한 인식 (2025, N=1000)



[그림] 연령별 '결혼 전제하지 않더라도 동거할 수 있다' 응답 비율 (2025, N=3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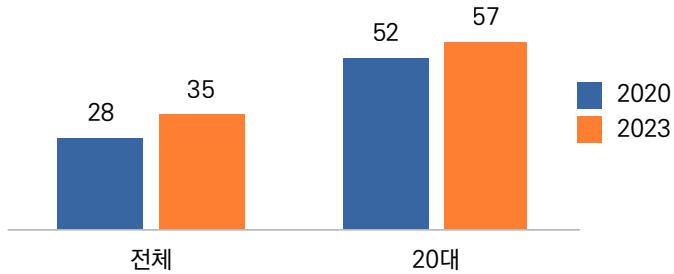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5 결혼인식조사] 결혼 문화의 변화, 2025.06.17.(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조사, 2025.03.21.~03.24.) 2021~2024년 각 연도별 결혼인식조사 링크 참조 (<https://hrcopinion.co.kr/archives/33230>)

\*60대(N=177)와 70세 이상(N=149)의 해당 항목 동의율을 연령대 사례수를 반영하여 60세 이상으로 재계산함.

## 20대 절반 이상(57%), ‘자녀 없는 결혼’에 동의!

-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응답률은 20대에서 57%로 나타나, 전체 평균(35%)을 크게 웃돌았다. 20대 청년의 절반 이상은 결혼 후 무자녀 선택을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그림]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긍정률  
(‘전적으로+약간 동의’ 비율\*, %)



※2020년 출처 : 성평등가족부,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2021.05.(전국 10,997가구의 만12세 이상 모든 가구원, 면접 및 유치조사 병행, 2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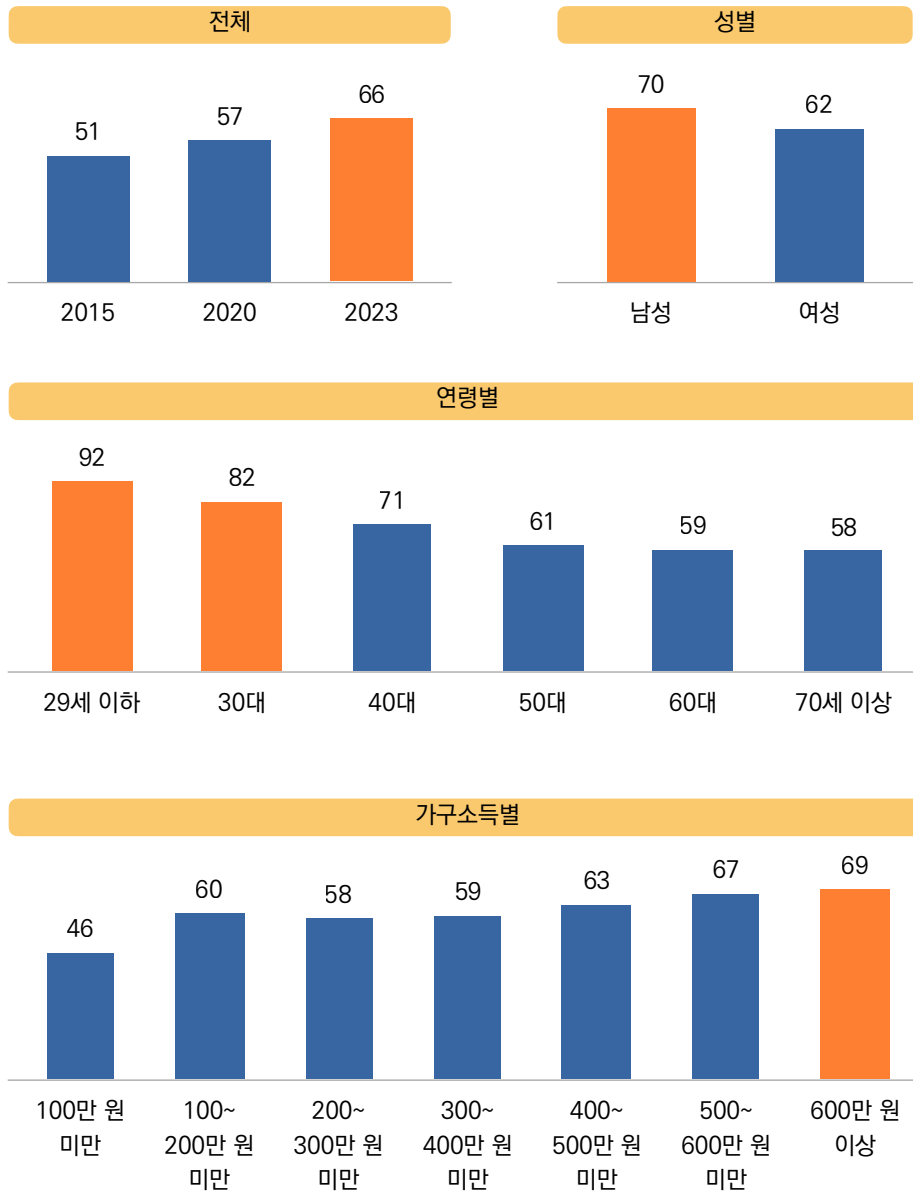
2023년 출처 : 성평등가족부,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2024.04.(전국 12,044가구의 만 12세 이상 모든 가구원, 면접조사, 2023.06.~07.)

\*5점 척도

## 배우자 만족도, '점수를수록', '소득 높을수록' 상승!

- 배우자와의 전반적 관계 만족도는 2023년 기준 66%로, 2015년 51%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한편 배우자 관계 '만족' 비율은 '남성', '30대 이하' 젊은 세대, 가구소득 '월 600만 원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배우자 관계 만족도 ('매우+약간 만족' 비율\*, %)



※2020년 출처: 성평등가족부,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2021.05.(전국 1,997가구의 만12세 이상 모든 가구원, 면접 및 유치조사 병행, 2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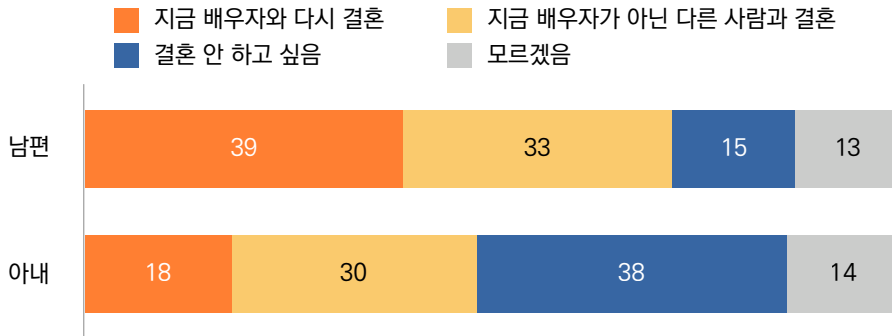
2023년 출처: 성평등가족부,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2024.04.(전국 12044가구의 만 12세 이상 가구원, 면접조사, 2023.06.-07.)

\*5점 척도

##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배우자와 결혼? 남편 39%, 아내 18!

-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할지'를 묻는 질문에 남편은 39%가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고 싶다'고 답한 반면, 아내는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하고 싶다'는 비율이 18%에 불과했다.
- 한편 아내의 1위 응답은 '결혼을 안 하고 싶다'(38%)였다.

[그림]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할까? (2025,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 N=57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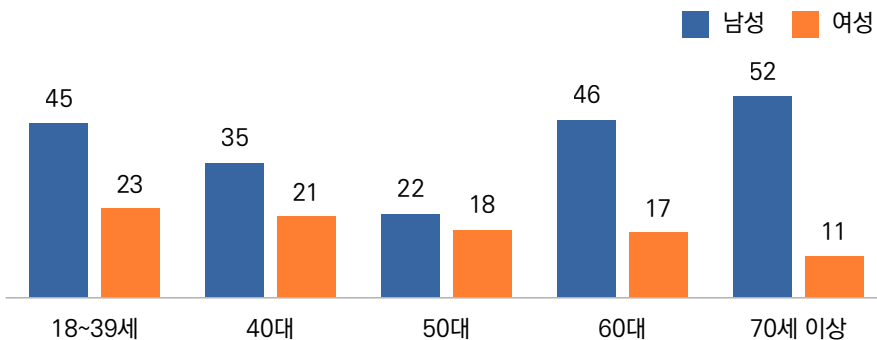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5 결혼인식조사] 미혼자의 결혼 의향, 2025.06.23.(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조사, 2025.03.21.~03.24.)

## 50대 남성,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 비율 최저!

-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고 싶다' 비율은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가운데, 남성은 70세 이상(52%)에서, 여성은 18~39세(23%)에서 '지금 배우자 다시 선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주목할 지점은 50대이다. 50대 남성의 현 배우자 재선택 비율은 2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또한, 다른 연령대에서는 남녀 간 인식 격차가 최소 14%p에서 최대 41%p까지 벌어졌지만, 50대 남녀 차이는 단 4%p에 불과했다.

[그림] 성·연령별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다' 비율 (2025,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 N=575,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5 결혼인식조사] 미혼자의 결혼 의향, 2025.06.23.(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조사, 2025.03.21.~03.24.)

## 이번호 요약

### 1. 지난 3년 새, 결혼은 늘고 이혼은 줄었다!

최근 10년간 혼인·이혼 추이를 보면 2014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혼인 건수는 2023년부터 상승세로 바뀌어, 2025년에는 24만 건을 기록했고, 이혼 건수는 2013년 11.6만 건에서 2025년(8.8만 건)에는 8만 건대까지 떨어졌다.

### 2. 50대 남성,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 비율 최저!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주목할 지점은 50대인데, 50대 남성의 현 배우자 재선택 비율은 2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 3. 지난 10년 새, 결혼 30년 이상 부부 중 황혼이혼은 무려 50% 증가!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건수를 보면 전체 이혼 건수는 10년 새 19% 감소했으나, 30년 이상 이혼만 유일하게 무려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 (두란노서원, 팀 켈러 저/최종훈 역)

## 관련 성경 구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

## 목회 적용점

이번 <넘버즈 332호>가 보여주는 통계는 우리 사회의 결혼과 가족 문화가 급격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알려준다. 혼인 건수는 반등하고 이혼은 줄어드는 외형적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부부들 사이에서 황혼이혼이 50%나 급증하는 뚜렷한 명암이 공존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서 보면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와 결혼할지'를 묻는 질문에 50대 남성의 배우자 재선택 비율은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는 가장 오래 다닌 직장을 나와서 직업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자녀들은 어느 정도 성장한 50대라는 인생의 변곡점에서 서로 정서적 무관심이나 갈등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 시기의 문제는 사실상 30~40대 부부 문제나 갈등이 누적된 결과임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다면 교회는 '부부들을 위한 교육'(대화법, 자녀/배우자와의 갈등대처기술 등)과 '기혼자 멘토-멘티 그룹 구성'을 시작할 수 있다. 자녀 연령/부부 연령을 고려한 생애주기에 맞는 부부 교육을 제공하고, 선배 부부들의 삶과 지혜를 공유하며, 서로를 독려하는 '안전한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많은 교회에서 부부 소그룹을 통해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보고가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서로 간 진솔한 대화와 다른 부부의 조언이 부부 갈등이 회복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 중심의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특별한 돌봄과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